

메시지 3
단체적인 임마누엘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함

성경: 마 1:20-23, 16:16, 18, 18:20, 28:20

- I.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는 것은 큰 축복이다 — 마 1:1, 21, 23, 2:1-2, 3:11, 4:12-16, 8:20, 9:12, 15-17, 36, 38, 11:19, 28-30, 12:3, 6, 39-42, 15:26-27, 16:16, 21:5, 28:18-19.
- II. 마태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 마 1:21, 23, 9:6, 12, 15-17, 38, 12:3-8, 39-42, 16:16-18.
- A.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다 — 마 22:41-45, 16:18, 18:17-20.
- B.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이다.
1. 18절에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모두를 가리킨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서도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엠 2:19-20.
 2.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고, 천국은 권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교회는 통치하는 왕국을 대표한다 — 마 16:18-19, 18:18.
 3. 건축된 교회는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토양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라신 결과로 산출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써 우리는 변화되어 감추어진 보물과 아주 귀한 진주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를 위한 것이다 — 마 13:3-8, 18-23, 44-46.
- III. 주님의 의도는 단체적인 임마누엘인 교회생활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 마 1:23, 18:20, 28:20.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 1:23, 18:20, 28:20.
1. 임마누엘은 육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육체 되심은 임마누엘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 마 1:20-23.
 2.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시다 — 마 1:23.
 3. 임마누엘은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 마 1:23.
 - a.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사람 모두이시며, 참된 신성과 실제 인성을 소유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역량을 갖고 계신다 — 히 7:25.
 - b.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신성해지기 위해 신성한 역량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최고 수준의 인성을 가지신 그분처럼 인간적이기 위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눅 1:35, 6:35.

- (1)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고 높여진 사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처럼 신성한 사람인 하나님-사람이 될 수 있다 — 히 2:11.
 - (2)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분으로서 인간적으로 되신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로서 신성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롬 8:3, 1:3-4, 요 1:14, 12-13.
 - (3)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적으로 신성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신성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충족시켜 주신다 — 롬 1:3-4, 히 2:10.
4. 오늘날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실재의 영이시다 — 요 14:16-20.
 - a.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신성한 삼일성의 임재이시다 — 고전 15:45하, 고후 13:14.
 - b.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나’는 임마누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돌아오실 ‘나’는 17절의 ‘실재의 영’이시다. 따라서 실재의 영께서 임마누엘이시다.
 - c. 신성한 임재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이 임재가 임마누엘인데, 그분은 실재적이시고 실지적이신 예수님, 곧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 롬 8:11.
 - d. 신성한 삼일성의 임재이신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분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 딤후 4:22, 고전 6:17.
 5.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땅이다 — 사 8:7-8, 10.
 - a. 원수인 사탄은 그의 군대와 함께 이 임마누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존재를 차지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 b. 이사야서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 곧 임마누엘의 실재이신 생명 주시는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을 결코 차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 고전 15:45하, 6:17.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개인적인 임마누엘이 단체적인 임마누엘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 마 1:23, 18:20, 28:20.
1. 마태복음 시작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 책 마지막에서는 단체적인 임마누엘인 교회생활을 본다. 교회생활에서 주님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1:20-23, 28:20.
 - a.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들어가 함께 모이는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들어가 함께 모이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들어가 함께 모이는 이름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 마 1:21, 18:20
 - b.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임마누엘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개인적인 임마누엘은 한 인간 처녀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단체적인 임마누엘은 한 무리의 처녀들 안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문제이다 — 마 1:18, 20, 23, 25:1, 눅 1:26-33, 고후 11:2.
3. 개인적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의 책인 마태복음에 계시된 모든 체험들에 의해 단체적인 임마누엘이 되신다.
4. 신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단체적인 임마누엘,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 고전 12:12, 골 3:10-11.
5. 단체적인 임마누엘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며, 새 예루살렘은 임마누엘의 집합체,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총체일 것이다 — 계 21:2-3, 10.